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5.26.(금) 11:00

누리호 탑재 차세대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 중

- 도요샛 1, 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는 위성신호 수신 성공
- 도요샛 3, 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계속해서 수신 시도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발사 당일인 어제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하였다.

오늘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하였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 신호를 수신하였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하였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운)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하였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담당자	주무관	송현량 (044-202-4646)